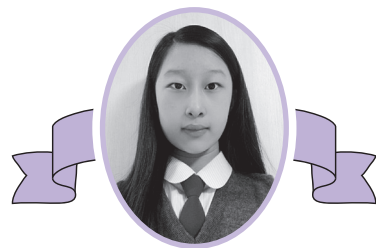


동상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



조민정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현대의 도시는 도로가 놓이고 도로를 따라 건물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졌다. 또한 도로를 따라 전기선이나 수도물배관과 가스배관이 연결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와 같은 연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료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나쁜 물질이 발생되어 공기오염과 열섬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마을은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다니며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는 태양열 전지판이나 지열을 사용하여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태양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공기오염의 걱정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나 태양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이럴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과 맑은 날씨에 충분하게 태양빛을 저장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사용하는 배터리처럼 태양열이 충분한 시간에 에너지로 저장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집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과 가스보일러가 배터리 저장실로 바뀔 것이며,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하여 냉장고를 가동하며 얼음을 얼릴 수도 있다고 한다. 건물에서 필요한 전기를 이렇게 태양빛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신기하여 호기심이 생겼다.

지열을 이용한 방법은 땅속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한 방법이다. 땅을 파고 들어가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필요한 따뜻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지열을 이용한 온천이 있다. 몇 년 전 겨울방학 때 부산으로 온천여행을 간 적이 있다. 온천물이 따뜻한 것도 땅속의 열 에너지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데워진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TV에서 ‘next21’이라는 주거단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친환경 시범건물이었다. next21 주거단지는 옥상과 건물벽면에 나무를 심어 건물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연못이 있었고, 방화 용수나 청소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양빛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창문도 신기했다. 이러한 친환경 주택과 에너지 절감 기술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신기했다. 여름방학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바닷가를 따라 하얀 풍차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께 여쭙보니 풍력발전기라고 하셨다. 제주도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라고 하셨다. 이런 풍력발전기는 평창여행을 할 때도 볼 수 있었다. 결국 친환경 에너지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대구는 어떠한 천연자원이 얻기 쉬울지 생각하게 되었다. 대구는 여름철 날씨가 매우 더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next21과 같이 옥상과 벽면에 나무를 심어 건물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친환경 도시는 천연 에너지원이 풍부할 때 저장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양열 이용이 있을 수 있고, 집 근처에 있는 봉무공원의 단산저수지도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나 소화용수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태양, 빗물, 나무, 바람과 같은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주변에 그대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현재 전기차가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이다. 얼마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정색 선에 연결된 자동차를 본 적이 있다. 아버지께 여쭙보니 전기차가 충전 중이라고 하셨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모습이 신기했다. 현재 사용되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없어질 염려가 없는 천연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미래의 도시는 이와 같이 천연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를 대신하여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자기부상 캡슐을 타고 대륙과 대륙을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친근하게 천천히 다가온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에너지와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자기부상 캡슐여행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비행기 없이도 외국여행도 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는 도로에 친환경 전기차가 다니고 먼 거리 해외여행은 자기부상 캡슐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

현재 부족한 자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은 태양열과 지열, 그리고 지역에 따라 풍력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옥상과 벽면은 나무를 심어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빗물을 연못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활용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주변에 항상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람과 태양, 그리고 나무들이 오늘따라 더욱더 고맙고 소중한 아름답게 보였다.